# 대흥사 호국대전 완공…호국본찰 위용 일신

**11월 2일 호국대전 완공법회 봉행**
**총412평, 단일 전각으로 국내 최대**
**진우 스님, 유인촌 장관 참석 축하**
**"호국불교 기억하는 성지로 가꾸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는 서산 대사 탄신 504주년을 맞아 11월 2일 경내에서 호국대전 완공법회를 봉행했다.

서산 대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호국불교의 의미를 되새기는 호국대전이 완성됐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주지 법상 스님)는 서산 대사 탄신 504주년을 맞아 11월 2일 경내에서 호국대전 완공법회와 이를 기념하는 문화대축제를 봉행했다.

이날 완공된 호국대전은 단일 전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총 412평(기단기준 1,363㎡)에 이른다. 정면 9칸, 측면 5칸의 전통양식 목조건물이다. 대흥사는 호국대전 건립으로 서산 대사의 의발이 전해진 이후 호국 본찰의 그 위용과 상징적 의미가 완성됐다.

호국대전 완성과 함께 열린 문화대축제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의원과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 대흥사 본·말사와 지역 사암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외빈으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응천 국가유산청 청장, 박지원, 민병덕, 정청래, 임오경, 박지혜 국회의원과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명현관 해남군 군수 등 정·관계 주요 인사 등도 참여했다.

주지 법상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대륙의 입구이고 한반도의 시작인 이곳 땅끝 해남에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호국대전이 건립된 것은 나라를 지키는 마음과 그 마음을 통한 국민 대화합의 상징을 세우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호국 호민 호법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과 추모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호국대전은 이러한 모든 국가영웅들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며 "조계종과 대흥사는 호국대전이 서산 대사와 의승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한국불교의 호국 호법 호민의지를 온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고 교육하고 소통하는 성지로 가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청허당 휴정 대선사께서는 위대한 선승이셨으며, 나라와 백성을 전란으로부터 구한 구국애민의 자비보살이셨다"며 "위대한 호국호법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호국대전을 건립해서 장엄하게 완공하고 문화대축제를 봉행하니, 이는 선사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이 이루어 낸 일이며, 길이 계승하고 선양해야 할 모범을 보임이다"라고 치하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지원 국회의원도 "국난 상황에서 나라를 구한 우리 불교의 호국사상을 후대에 전하는 역사교육의 장인 호국대전 건립을 축하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종정 법어에 이어 호국대전 완공 문화축제에 참가한 주요인사들은 마하선주선 선생이 쓴 호국대전 현판을 제막했다.

기념식에 앞서 표충사에서 열린 서산대사 504주년 예제관 행렬 및 추계제향은 초헌관 이성옥 해남군의장, 아헌관 김성일 전남도의원, 종헌관 안형주 해남경찰서장이 맡았다.

한편, 대흥사는 11월 2일~3일 양일간 보현전에서 호국대전 완공을 기념해 '호국정신의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 "호국영령 이고득락을 기원합니다"

**통영사암聯 강구안 문화마당서**
**갑진년 무차평등 위령대재 봉행**
**해상 혼백 위로, 극락왕생 기원**


통영불교사암연합회는 11월 2일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 해상무대에서 갑진년 무차평등 합동 수륙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과 맞서 싸우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전사한 순국선열과 1974년 통영 예인정 침몰사고로 희생된 해군과 해경, 해상사고로 숨진 어민들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무차평등 합동 수륙위령대재가 봉행됐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회장 묵원 스님)는 11월 2일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 해상무대에서 갑진년 무차평등 합동 수륙위령대재를 봉행했다.

1부 법요식과 2부 수륙위령대재, 3부 해상소전, 4부 무차평등 만발공양으로 진행된 이날 수륙대재에 통영불교사암연합회회장 묵원 스님, 고성연합회장 수운 스님,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 용화사 진응 스님, 보광사 연산 스님, 해인정사 자원 스님, 도솔암 정왜 스님, 연화사 도법 스님, 백운사 석봉 스님, 법성사 만우 스님, 왕복사 자우 스님, 금왕사 금산 스님, 대성암 범서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천영기 통영시장, 배도수 통영시의회의장, 정점식 국회의원, 안휘성 통영거사림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모였다.

1부 법요식에서 통영불교사암연합회장 묵원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순국선열 애국열사님들과 선열들이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는 어떤 수난에도 꺾이지 않는 민족의식과 자존감을 세워주었고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이 됐다"며 "호국영령들과 군경 장병 영령, 선망 영가님들의 이고득락을 기원하며 이 땅의 어둡고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신명을 다 바쳐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시민기원문을 통해 "통영바다는 한산해전 호국영령과 순직 해군·해경 영령, 조업 중 돌아가신 어업인들이 유명을 달리한 거룩한 헌신과 희생의 바다"라며 "수륙위령대재를 통해 영령들의 보살핌으로 통영바다의 안전과 풍요, 시민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무차평등수륙대재 증명법사 용화사 진응 스님은 영가법문을 통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허공에 조각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고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음이라 구름 자체는 실체가 없는 것 생사거래(生死去來)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라며 "유주무주 영령들이 남긴 삶의 의지를 본받아 착실한 믿음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생업을 스스로 가꾸어 나갈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교전통의식으로 진행된 수륙재에는 백운사 석봉 스님을 비롯한 아랫녘수륙보존회 스님들이 참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불교 '탁발', 전통시장서 펼쳐지다

**11월 2일, 광주 양동시장서**
**"탁발은 수행 · 중생구제 방편"**



불교의 '탁발'은 수행자의 기본덕목인 하심(下心)을 깨우치는 수행의 방편 중 하나다. 광주의 불자들이 탁발을 소재로 한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사)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소운 스님)는 11월 2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제5회 전통 탁발 재현 문화행사'를 개최했다.〈사진〉

'202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의 일환인 이번 탁발 행사는 탁발을 통한 수익금을 지역 청소년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고자 광주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일대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사)날마다좋은날과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공동주최하고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백양사 신도회, 전통탁발보존회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나주 녹야원 효공·소운스님을 비롯한 지역사찰 주지스님과 양동시장 상인회, 광주전남포교사단과 운전불자회원, 불교종립학교 정광고에서 참여했다.

기념식으로 시작된 탁발은 1km 남짓한 양동시장을 가로지르며 진행됐다. 조선대 풍물패를 선두로 정광고 학생들의 만장기, 동자승, 탁발스님, 포교사단, 운전불자회 등 150여 명이 줄을 서서 이어갔다.

행사에 앞서 소운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탁발은 불교 전통의식으로 스님들의 수행의식이자 중생구제의 방편"이라며 "탁발의 정신을 담은 행사의 수익금은 모두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금산사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 성료

**산사문화유산활용사업 일환**
**年13회, 1000여 명 동참해**



김제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가 11월 2일 가족 화합을 위한 '마음 쉬는 토요일' 체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을 회향했다.〈사진〉

2024년 5월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은 13회에 걸쳐 1000여 명이 참가했다. △미륵전 공포조립체험 △오유지족 다식다도 체험 △대장전 소슬금강저 염색체험 △모악산 사진관 △어린이국악교실 △룰렛게임 등의 체험행사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 △모악산 인문학교실 등을 운영해왔다.

올해 7년 차를 맞은 금산사 프로그램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단위 참가자가 느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

가족과 함께 세종에서 온 이민희 씨는 "온 가족이 함께 하루 종일 사찰에 머물며 우리 전통문화유산에 대해 재밌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금산사는 우리 문화를 가르치는 게 아닌 가족과 함께 체험해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천년고찰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은 산사가 보유한 문화유산을 활용해 특색 있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사업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붓다라마사, '가사공양 법회' 봉행



천안 붓다라마사(주지 찌라싹 스님)가 11월 3일 경내에서 '카티나' 법회를 진행했다.〈사진〉 카티나 법회는 태국, 미얀마 등 남방불교에서 봉행하는 의식으로 하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음식과 가사를 공양하는 법회다.

법회에는 광명 금강정사 주지 가섭 스님, 마하위하라 왕기스 스님, 서울 네팔법당 라마쿤상 스님, 베트남 원오사 주지 띡동탄 스님을 비롯해 풍찻판시 태국대사관 무관 등 전국에서 찾아온 태국불자와 한국불자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

주지 찌라싹 스님은 "붓다라마사 건립을 위해 한국에 온 태국인들이 하나가 되어 노력했다. 이 사찰은 모두를 위한 공동체 시설"이라고 인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개관 17주년 축제

**10월 31일, 복지관 앞마당서**




조계종 제24교구본시 선운사복지재단(대표이사 경우 스님) 산하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관장 해봉 스님)은 10월 31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제17회 개관기념 복운축제'를 열었다.〈사진〉

축제는 선운사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우 스님, 심덕섭 고창군수, 어르신 및 지역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관장 해봉 스님은 "개관기념 복운축제를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발원한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내소사, 문화체험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지역민, 관광객 참여 · 소통의 장**



부안의 천년고찰 내소사(주지 진성 스님)가 11월 2일 가을로 물든 능가산과 느티나무를 배경으로 '2024 내소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내소사 산사음악회와 여러 체험활동을 통해 내소사 문화유산에 빠져들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성 스님은 권익현 부안군수에게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각원사, 불교대학 총동문 체육대회

**11월 2일 태조산 수련관서**




천안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는 11월 2일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에서 '불교대학 졸업생 총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체육대회는 코로나19 여파를 딛고 7년 만에 동문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원 스님은 "우리가 한마음으로 같이 뛴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다"라며 "불교대학 동문 여러분들의 힘을 만들어 내는 자리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덕원사, 창건 26주년 개산대재

**11월 3일, 경내 특별법단서**




울산 덕원사(주지 덕원 스님)는 11월 3일 경내에 마련된 특별법단에서 창건 26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사진〉

덕원사 주지 덕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정진과 전법의 도량으로 가꾸고자 한다"며 "보현행으로 불국토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광주 증심사, 오백나한대재 봉행

**11월 4일 경내 오백전서**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 스님)는 11월 4일 경내 오백전에서 '갑신년 오백나한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오백나한대재는 오백전에 봉안된 석가모니불, 10대 제자, 16성중, 오백나한에게 공양을 올리는 행사다.

행사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선재사 주지 진훤 스님과 대중스님들의 오백대재 기도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